

“스크린 속 펼쳐진 여성의 다채로운 삶과 죽음”

제15회 광주여성영화제 광파르
‘권 단편공모’ 본선 진출작 공개
올해 456편 출품 중 12편 추려
심사 통해 감독상 등 선정 예정

제15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오는 11월 개최되는 가운데 영화제 기간에 상영 예정인 ‘권 단편공모’ 본선 진출작 12편이 23일 공개됐다. 여성의 다채로운 삶과 죽음에 주목한 영화들이 추려져 기대를 모은다.

광주여성영화제의 단편경쟁 부문인 ‘권 단편공모’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접수를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2편 더 많은 456편이 출품됐다.

먼저 허다희 감독의 ‘침방’은 새벽 수영반이 열리기 전 가장 먼저 출근하는 수영장 청소원 세인이 육아 휴직 대체 채용 공고문을 보고 지원을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민화 감독의 ‘백차와 우롱차’는 간호사 은재가 소운의 한옥 찻집에서 차를 마

시며 과거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다.

이이다 감독의 ‘다-데이, 프라이데이’는 프로 야구의 열기로 뜨거운 1984년 광주. 짝사랑하는 지태의 고교야구대회 선발전에 가고 싶은 은주의 이야기를 다룬다.

최범찬 감독의 ‘복순씨의 원데이 클래스’는 장성한 자녀들이 모두 곁을 떠난 제주 토박이 할매 복순이 어느날 요가원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받게 되는 이야기다.

임지선 감독의 ‘헨젤: 두 개의 교복치마’는 허구한 날 벌칙으로 노래를 시키는 음악 수업 전, 한슬은 준비물인 리코더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이들 앞에서 서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한슬이 무작정 집으로 뛰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심아안 감독의 ‘뽕고’는 엄마를 떠나보낸 후 105kg까지 체중이 불게 된 보라의 성장통을 다룬다.

이경호 감독의 ‘혼자’는 시각 장애를 가지게 된 선미가 가족과 싸우고 갑작스러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민화 감독 작 ‘백차와 우롱차’ 스틸컷.

다.

최승현 감독의 ‘영아의 섬’은 할머니 순이와 함께 남해에서 사는 열여섯 영아의 이야기다. 할머니와 강아지 달래가 세계의 전부였던 영아는 섬 밖의 세계를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김보민 감독의 ‘옥수수’는 스마트팜에서 일하는 윤슬이 난임 휴직을 받기 위해 효림과 함께 일하게 되는 이야기다. 소문과 달리 열심히 일하는 효림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자신이 갖지 못한 아이를 가진

그녀에게 점점 미묘한 감정이 쌓여간다.

김소희, 전도희 감독의 ‘마이디어’는 청각장애를 가진 대학 졸업반 학생 가을이 AI 어플 ‘마이디어’를 이용해 졸업 작품을 제작하면서 어플 속 남자와 대화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은지 감독의 ‘영원한 유산’은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수정이 엄마의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다.

이다솔, 김가는 감독의 ‘굿바이 트라우

마 - 너에게 이름을 줄게’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겪고 우울증을 앓았던 사유가 트라우마 장례식을 열기로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번에 선출된 12편의 ‘권 단편공모’ 본선 진출작은 제15회 광주여성영화제 기간인 오는 11월 9일 CGV 광주금남로점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날 관객 심사 등을 통해 ‘권 감독상’ (상금 100만원), ‘권 특별상’ (상금 50만원), ‘권 관객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11월 10월 제15회 광주여성영화제 폐막식에서 공개된다.

12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한 예심위원들은 “이번 영화제의 캐치프레이즈인 ‘카운트 업(COUNT UP)’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성들의 다채로운 삶과 죽음을 깊이 있게 그려낸 작품에 주목했다”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여성들이 여러 난관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 그 과정에서 희망과 연대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영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황금빛 풍요… 김연수 초대전 ‘금화’

내달 2일까지 나주정미소

복합문화공간 나주정미소 작은미술관에서 한지 회화를 감상할 수 있는 김연수 초대전 ‘金花-Sunflower’가 24일부터 열린다. 한지 위 금박 채색을 올린 다채로운 꽃 회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김연수 작가는 섬세한 필선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중첩된 채색 표현을 완성한다.

이번 전시 작품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풍요를 상징하는 이미지이면서 재물과 행운을 불러온다고 알려진 해바라기를 주제로 한다.

특히 한지 위에 채색을 반복적으로 올려 질감이 올라오게 표현했다. 화면 배경에 펼쳐진 황금색 금박작업은 담백한 안정감을 주고 노란 빛이 서로 조화롭게 담겨 고유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김연수 작가는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내면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 듯, 아름다운 인생을



남한 김연수 초대전 2024. 9. 24. (화) ~ 10. 2. (수) 복합문화공간 나주정미소 작은미술관 전시장: 나주시 광안로 5 001-304-1501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정미소 작은미술관은 나주시 과원길5에 있다. 전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이어진다. 관람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

도선인 기자

동강대 학생들, ‘대한민국 맛·멋’ 알린다

비엔날레서 ‘마당 푸드 랩’ 운영
학생 글로벌 경쟁력 성장 기대

동강대학교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가 비엔날레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맛과 멋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23일 동강대에 따르면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전시장 야외광장에서 ‘마당 푸드 랩’을 운영 중이다.

‘마당 푸드 랩’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을 모두가 함께 먹고 어울릴 수 있는 ‘마당’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 프로젝트다.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는 ‘마당 푸드 랩’을 기획한 프랑스 출신 요리사 질 스타사르(Gilles Stassart)와 함께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콘셉트로 한 2024년 광주비엔날레를 K-푸드의 맛으로 한층 빛내고 있다.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학생들은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셰프로 예술과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학생들이 23일 광주비엔날레 야외광장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외국인들에게 K-푸드를 맛보게 하고 있다.

동강대 제공

식문화를 잇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한 질 스타사르와 작업하며 ‘맛의 도시’ 광주를 세계 속에 한 번 더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뽐내고 있다.

앞서 동강대는 지난 7월 (재)광주비엔날레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에 힘

을 모으기로 했다.

오명진 학과장은 “비엔날레라는 큰 국제 행사에서 전 세계인들이 음식을 통해 교감을 나누는 데 참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학생들도 큰 무대에서 실력을 보여주고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ACC 레지던시 ‘크리에이터스 토크’

아트&테크놀로지 분야 8팀 소개
28일 창·제작스튜디오 실연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ACC 크리에이터스레지던시’ 참여자가 참가하는 ‘크리에이터스 토크’를 오는 28일 문화창조원창·제작스튜디오 미디어 시연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사업은 인공지능·인간·다중우주를 주제로 아트&테크놀로지 분야 창·제작자 8팀을 선정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실험적인 프로젝트 창·제작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크리에이터스 토크’를 ACC의 대표 융·복합 예술축제인 ‘ACT (Arts& Creative Technology) 페스티

벌 2024’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한다. 레지던시 참여자인 교각들, 레이엘씨, 류타 아오키, 싸이언 동주, 신피지카, 스카이스코어스, 스페이스앤드, 하카손 등 국내외 8팀이 참여해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중간 제작과정을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은 오는 11월 22일~24일 ACC 창·제작 스튜디오에서 오픈스튜디오 및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터스 토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현장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모두 무료로 자세한 정보는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미스터리 양림동 피크닉 ‘미광무도회’ 즐겨볼까

광주문화재단 28일 진행 20명 모집
근대대상 입고 미스터리 사전 해결

광주문화재단이 역사가 깃든 남구 양림동에서 근대상을 입고 곳곳에 마련된 여러 비엔날레 전시를 감상하며 미스터리 사건의 단서를 찾는 참가형 프로그램 ‘미스터리 피크닉-미광무도회’에 함께 할 시민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

‘미광무도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미광의상실에서 시작해 호랑가시언덕, 우일선 선교사사택 앞마당, 양림골목비엔날레 전시 등을 이동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미광무도회’는 양림골목비엔날레(9월 4일~11월10일)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광주문화재단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광주예술로’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 미광의상실(대표 최선희) 및 다섯 명의 예술가가 함께 한다.

다섯 명의 예술가는 리더예술인 문진영(희곡, 시나리오) 작가를 비롯해 참가예술인 이은빈(문화콘텐츠 기획), 성유진(화가), 윤세인(가야금명장), 최정인 작가 등이다.

‘미광무도회’ 세부 프로그램은 미스터리라는 독특한 형식을 빌려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0여명의 참가자들이 예술가들과 함께 미광의상실에서 근대 의상을 입고 양림골목비엔날레를 감상하며 곳곳에 감춰진 미스터리 사건의 단서를 찾아 우일선 선교사 사택 앞마당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가하는 구성으로, 피크닉과 공연을 즐기며 함께 추리

를 풀어나간다. 즉석 공연은 윤세인 씨가 나서 오페라 풍각쟁이아 등 3곡 정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 참가비는 2만원으로 참가 혜택은 근대대상 대여와 호랑가시언덕에서 즐길 수 있는 피크닉세트 그리고 성유진 씨가 직접 그린 작은 파우치가 기념선물로 지급된다. 사전 예약은 양림골목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신청 폼을 통해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당일 현장에서 10명 신청 가능하다. 연령제한 없음.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사는 “이번 행사는 시간여행이 가능한 양림동에서 장르적인 결합을 시도하고 예술가들의 재치와 감각을 결합함으로써 양림동만의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도선인 기자